

## 패션디자인관련 학과 내 창업교육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정 화 연

국제대학교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 Basic research for designing start up business education in fashion design related departments

Hwa-Yeon Jeong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ookje College

(2018. 5. 1 접수; 2018. 6. 13 채택)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students' perception of a starting up business in the fashion design related departments of two year college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designing a start up business education and examined the opening status of the start up business subjects. Only 4.4%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an experience in a start up. And 76.2%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ould like to start up a business after graduation. The initial start up types were "online shopping mall" and "blog market" in that order. Nearly 86.7%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needed "start up" education in college.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would participate if there is a start up extracurricular program, and the subject they would choose, 40.9% answered "I want to get a start up related certification", showing the highest rate of interest in the course. The status of introducing start up business subjects in the regular courses in fashion design related departments in 25 two year colleges related that there were 11 start up related courses begun in the last semester, that is, the 2nd semester of the 2nd year. Since the proportion of clothing in online shopping malls is high, start up education based on the demands of students in fashion design majors can be used as another employment exit strategy.

*Key Words:* start up business(창업), start up business subjects(창업교과목), students' perception (학생들의 인식)

## I. 서론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대학들과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창업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창업교육은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의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정부, 주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Hwa-Yeon Jeong  
Tel. +82-31-610-8166, Fax. +82-31-610-8169  
E-mail : jhykcd@naver.com

정부, 대학 및 민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었다(Pena 외, 2011).

우리나라 정부도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내놓았는데 2013년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창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수준에서 혁신 기업가와 창의적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2013)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청년 창업을 기술혁신창업과 생활혁신창업으로 나누어 각 지원 방안과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이처럼 정부가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며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및 지원 사업, 투자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창업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가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한영준(2018)의 대학생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이 창업 아이템 1순위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아이템 중 패션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청년 실업과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패션디자인 전공자들이 전공에 대한 전문적 교육 뿐 아니라 창업 교육이 병행된다면 졸업 후 또 다른 취업 출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은 대학 교육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학에서 각 전공에 맞게 보다 깊이 있는 창업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2년제 전문대학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창업 교과목 개설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패션디자인과 내의 창업교육 설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창업의 정의 및 유형

창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Schumpeter(1934)는 “창업이란 새롭고 보다 나은 일처리 방법의 창출을 통하여 기존의 방법을 파괴하는 창조 파괴의 힘이다.” 라고 정의하였고, Drucker(1985)는 창업에 대해 ‘새로운 부(富)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의 자원을 투입하는 혁신적인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또 박춘엽(1997)은 창업을 ‘창업자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을 동원하여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기도 하였으며, 백형기(1999)는 ‘창업이란 사업의 기초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으로서 창업자가 창업 아이디어와 일정한 사업목표를 바탕으로 생산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제품생산 등에 적합한 기업을 세우는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창업에 대한 정의는 하나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창업이란 통상적으로 기존 업체 중 분명한 모기업이 없이 새롭게 형성된 기업이라는 정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용웅, 차미숙, 1994).

창업의 유형은 크게 일반창업, 벤처창업 그리고 소호창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창업이란 일반인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범위에서의 창업이며,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창업으로 구분한다. 또 벤처창업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신생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호창업(SOHO : Small Office Home Office)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주체적으로 전개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한다(김주철, 2016). 패션창업의 경우 일반창업과 다르게 제조기술 기반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기반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벤처창업(start-up)의 특성을 나타내며 기존의 사무실 개념을 벗어나는 공간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소규모로 시작한다는 면에서 소호창업의 특성도 갖는다(오현정, 2018).

### 2. 대학 내 창업 교육

창업교육이란 사업 아이디어의 탐색,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공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창업 관련 지식 및 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 잠재적 창업가들의 창업의지를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석, 이상명, 2015). 국내에서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부터 대학 내에서 창업관련 강좌로서 중소기업경영론이 개설되었고, 동국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등에서 초기에 창업 강좌를 개설하여 국내 창업 교육을 개척하였다고 보고 있다(박준엽, 1993). 이후 창업교육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창업론, 중소기업론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체제론이라는 교과목이 등장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창업을 경영학의 한 분야가 아닌 독립적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서 160여 대학의 학부 정규교육과정에서 창업 강좌가 운영되었으며, 2000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을 위한 대학원 과정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김주미 외, 2014).

현재 학부의 창업관련 강좌는 전문학과가 없는 경우는 주로 선택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었으며, 석사과정 이상의 경우는 창업대학원과 기술경영 대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창업교육을 통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절차 및 창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국내 창업 교육의 역사가 짧아 전문교육인력이나 교수방법, 교재개발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인곤, 2012). 한편 김주미 외(2014)의 연구에서 전문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 모두 공학 계열을 중심으로 창업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여 타 전공 학생들의 경우 창업 교육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졸업 후 창업에 대한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재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고,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교과목 개설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내 창업 교육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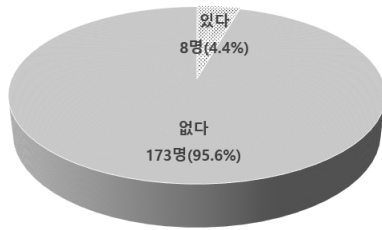
연구방법은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 관련 전공자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전문대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사전 테스트 후 수정을 거쳐 2018년 4월 9일부터 2018년 4월 24일까지 총 210부를 배부 후 회수된 192부 중 응답이 미흡한 것을 제외한 181부를 설문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이요행(2012), 김주철(2016), 이보영(2010)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재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창업 경험 및 입학 전 창업 교육 여부에 관한 문항, 대학 졸업 후 창업 의사 및 창업 교육 관련 문항 등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1>은 응답자의 나이와 성별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 관련과의 창업 교과목 개설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대학 알리미를 통해 “패션”을 입력하여 학과 검색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학과명에 패션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교육과정에서 신발, 인테리어, 뷰티, 모델 등이 주가 되는 과는 제외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에 교육과정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학과를 제외하고 25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각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육과정을 참고로 창업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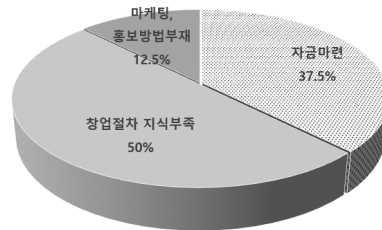
<표 1> 응답자의 나이와 성별

구분	성별		연령								계
	남	여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이상	
응답자수	80 (44.2)	101 (55.8)	15 (8.3)	69 (38.1)	31 (17.1)	24 (13.3)	27 (14.9)	10 (5.5)	2 (1.1)	3 (1.7)	1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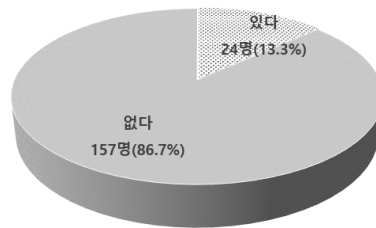
n(%)



〈그림 1〉 창업 경험 유무



〈그림 2〉 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창업 유경험자만 응답)



〈그림 3〉 대학 입학 전 창업교육 수강 유무

#### IV. 결과 및 고찰

##### 1. 패션디자인 관련 전공자들의 창업 및 창업교육 여부

###### 1) 창업 경험 유무

패션디자인 관련 전공자들이 창업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그림1〉)에 응답자의 95.6%가 이전에 창업을 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4.4%만이 창업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창업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87.5%가 블로그 마켓을 통해 창업을 하였다고 답하였고, 1.3%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창업을 했다고 답하였다. 이는 창업을 경험한 대부분 응답자의 경우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기 용이한 블로그 마켓을 통해 창업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창업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1명이며 나머지 응답자는 모두 대학 입학 후 창업을 시작하였다고 답하였다. 또 운영 기간을 묻는 질문에 모두 1년 미만이라고 답하였으며, 창업할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창업 절차에 대한 지식부족(50%), 창업 자금 마련(37.5%), 마케팅이나 홍보 방법 부재(12.5%) 순으로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그림2〉). 이는 최진희(201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의류, 의상학과 재학생을 대

상으로 창업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5.7%만이 “그렇다”라고 답하여 실제 창업을 한 학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준비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자본금 마련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현재 창업 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2) 대학 입학 전 창업교육 수강 여부

대학 입학 전 중고등학교 시절 창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그림3〉) 응답자의 13.3%만이 대학 입학 전 창업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창업교육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아리나 진로교육 시간에 온라인 쇼핑몰 창업 관련 동영상 시청하거나 혹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답변과 “쇼핑몰 동아리에 참가했다”, “동아리 활동 시 쇼핑몰을 창업한 외부 인사의 창업 경험담을 들었다”, “G마켓 교육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의 답변을 하였다. 향후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관련 교육이 대학과 연계되어 실시된다면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대학 졸업 후 창업 희망 여부 및 운영 방법

### 1) 대학 졸업 후 창업 의사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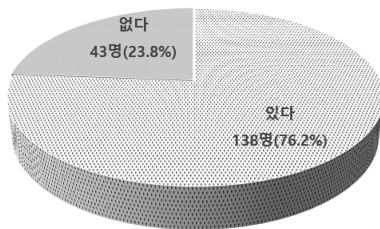
대학 졸업 후 창업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그림4〉)에 응답자의 76.2%가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패션디자인 관련 전공자들의 경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진희(2014)의 연구에서 창업을 희망한다고 답한 67.2%의 응답률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자에게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그림5〉), 응답자의 66.7%가 “자유롭게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23.2%가 “성공에 대한 도전 의식”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일정한 틀에 얽매어 일을 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창작을 통해 자신의 패션상품을 팔고자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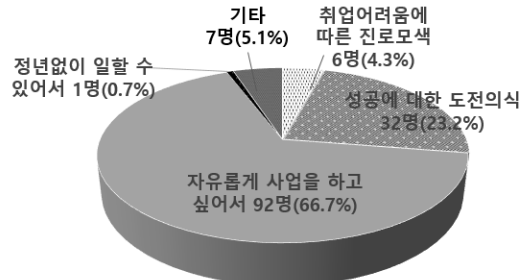
욕구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 2) 대학 졸업 후 창업 시 운영 방법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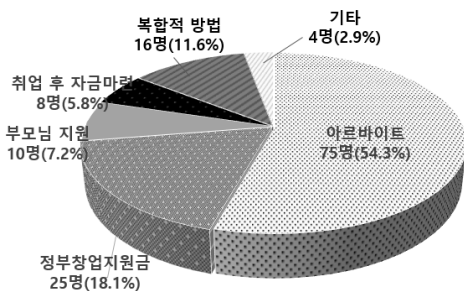
창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138명을 대상으로 창업 시 자금은 어떻게 조달을 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3%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예정(18.1%), “복합적 방법으로 마련”(1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6〉). 복합적 방법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와 부모님 지원 혹은 정부 창업 지원 및 부모님 지원 등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금을 모으겠다고 답한 경우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 많은 경우 창업을 위해 부모님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정부 지원 혹은 취업으로 목돈 마련 등 독립적인 방법으로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떤 형태로 창업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창업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1.9%) 다음으로 “블로그 마켓(24.6%)”, “오프라인 매장(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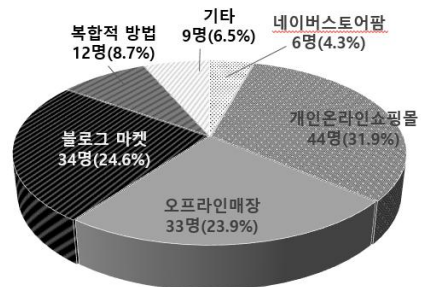
〈그림 4〉 대학 졸업 후 창업 의사 여부



〈그림 5〉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



〈그림 6〉 창업 자금 조달 계획



〈그림 7〉 초기 창업 유형

〈표 2〉 창업 희망 아이템(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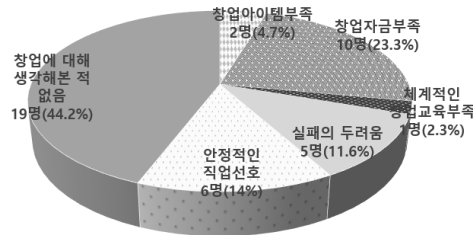
구분	여성의류	남성의류	유니섹스	화장품, 뷰티	가방류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	신발류	여러 아이템 복합	기타 (한복, 비전공)
응답자수	65 (35.9)	48 (26.5)	6 (3.3)	4 (2.2)	9 (5.0)	25 (13.8)	0 (0.0)	16 (8.8)	23 (12.7)

n(%)

〈표 3〉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복수응답)

구분	창업 비용	성공적 아이템	실행력	함께 일할 인재	창업관련 전문지식	기타 (복합)
응답자수	45 (24.9)	80 (44.2)	42 (23.2)	20 (11.0)	49 (27.1)	3 (1.7)

n(%)



〈그림 8〉 창업의사가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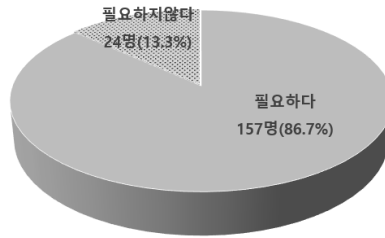
순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응답 하였다(〈그림7〉). 블로그 마켓의 경우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여 본격적으로 패션 관련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초기 창업 유형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창업 초기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300~600만원”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0만원 이상”(26.1%), “1000~2000만원”(21.7%), “100~200만원”(13.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1000만원 이상”을 창업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시 희망 아이템으로는 여성복이 35.9%, 남성복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액세서리가 13.8%, 여러 아이템 복합이 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패션 액세서리보다는 의류를 창업 희망 아이템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2%가 “성공적 아이템”이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창업관

련 전문지식”(27.1%), “창업비용”(24.9%), “실행력”(23.2%) 등의 순서대로 나타났다(〈표 3〉).

한편, “창업할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 본 결과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라고 답한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업 자금 부족(23.3%), 안정적 직업 선호(14.0%)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그림8〉). 향 후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설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도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청년들이 창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 후 사회에서 패배자로 여기는 경향 때문인데, 창업 후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실패요인을 컨설팅 해 줌으로써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9〉 패션디자인과 내의 창업 교육 필요도

〈표 4〉 창업을 위해 대학 내 필요한 지원내용(복수응답)

n(%)

구분	성공한 창업가 특강	교육과정 내 양질의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창업교육 등 비교과 프로그램	창업 전문가 멘토링	졸업생 중 성공한 창업가와의 네트워크	온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기타
응답자수	68 (37.6)	74 (40.9)	56 (30.9)	75 (41.4)	61 (33.7)	22 (12.2)	2 (1.1)

〈표 5〉 가장 필요한 창업 교육 내용(복수응답)

n(%)

구분	사업계획서 작성법	전자상거래 교육	국내외 성공 창업사례분석	글로벌 마켓전략	기업가 정신	마케팅지식	세무 지식
응답자수	57 (31.5)	92 (50.8)	45 (24.9)	50 (27.6)	16 (8.8)	91 (50.3)	42 (23.2)

〈표 6〉 창업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 희망과정(복수응답)

n(%)

구분	창업 동아리	관련 자격증 취득	온라인 창업 강좌수강	전문가 창업 멘토링	창업경진대회 참가	기타 (복합)
응답자수	32 (17.7)	74 (40.9)	36 (19.9)	63 (34.8)	11 (6.1)	2 (1.1)

### 3.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내의 창업교육 필요 여부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내의 창업교육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필요하다”라고 답하여 많은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이 창업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9〉).

한편, 창업을 위해 대학 내 필요한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창업 전문가 멘토링”과 “정규교육과정 내 양질의 창업 교육”이 각각 41.4%, 40.9%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성공한 창업가 특강”이 37.6%, “졸업생 중 성공한 창업가와의 네트워크”가 33.7%, “창업 동아리나 창업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30.9%로 나타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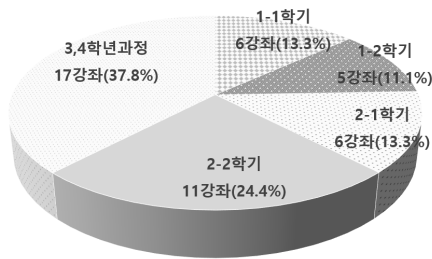
교육보다는 교육 과정 내에서의 전문가에 의한 창업 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창업 교육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전자상거래 교육이 50.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마케팅 지식(50.3%), 사업계획서 작성(31.5%), 글로벌 마켓 전략(27.6%), 세무지식(2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의 확장으로 인해 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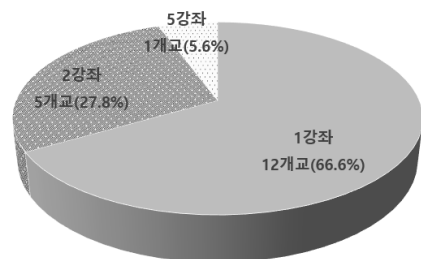
창업 관련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참여하고 싶은 과정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창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 창업 멘토링(34.8%), 온라인 창업 강좌 개설(19.9), 창업동아리(1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

〈표 7〉 온라인 쇼핑물 교육 중 필요하다 생각되는 내용(복수응답)

구분	쇼핑물 창업준비	시장조사	상품 기획관리	사이트 제작 및 디자인	마케팅 및 홍보	쇼핑물 운영방법	글로벌 온라인 쇼핑물 창업절차
응답자수	81 (44.8)	75 (41.4)	61 (33.7)	48 (26.5)	72 (39.8)	56 (30.9)	18 (9.9)



〈그림 10〉 학기 별 개설된 창업 교과목수



〈그림 11〉 학교 별 개설된 창업 강좌수

4. 온라인 쇼핑물 교육 필요성

창업 교육 중 온라인 쇼핑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86.7%로 나타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앞서 창업 시 운영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온라인쇼핑물”을 창업하겠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온라인 쇼핑물 교육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는 쇼핑물 창업 준비절차(44.8%)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시장조사 방법(41.4%), 마케팅 및 홍보(39.8%), 상품기획관리(3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물 절차(9.9%)에 대한 요구는 낮아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7〉).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물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2.8%가 배운 경험이 없고, 7.2%만이 배운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대학 내 온라인쇼핑물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문한 결과 창업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이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아울러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도 창업관련 자격증 취득, 전문가 창업 멘토링, 온라인 창업 강좌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가 개설된 2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교과목 개설 현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창업 교육에 대한 현 상황을 살펴보고 창업 교육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5.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 관련 정규 교육과정 내 창업 교과목 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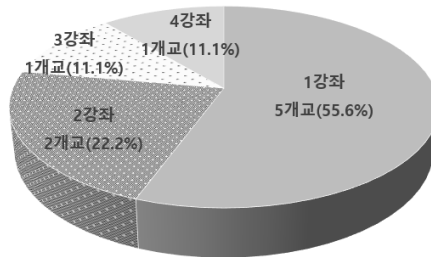
2년제 대학의 창업 교과목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알리미를 통해 “패션”을 입력 후 학과 검색을 하였으며 그 중 학과명에 패션이란 용어가 있으나 슈즈나 모델, 뷰티, 인테리어 등의 교육이 주를 이루는 학과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 학과 중 학과 홈페이지에 교육과정이 미 탑재된 학과를 제외한 25개 전문대학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교육과정은 각 학과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육과정을 참고로 분석하였다.

먼저 학기 별 창업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은 〈그림 10〉과 같으며, 학기 별 세부 교과목명은 〈표 8〉과 같다. 1-1학기에 개설된 창업 관련 교과



〈표 8〉 학기 별 창업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구분	교과목명	과목수
1-1	교양	벤처창업, 취창업 멘토링, 패션블로그, 소자본창업, 창업과 경영
	전공	창업과 진로
1-2	교양	성공 취창업 전략, sns 콘텐츠 만들기,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
	전공	아트 패션창업실무, e-비즈창업
2-1	교양	창업아카데미, 지식창업, 특허와 창업실무
	전공	패션창업스쿨, 인터넷쇼핑몰창업, 창업상품개발
2-2	교양	창업실무
	전공	패션창업스쿨, 섬유 의상 취업과 창업, 온라인쇼핑몰 창업, 패션쇼핑몰 창업, 패션쇼핑몰 기획 제작, 패션창업실무, 인터넷쇼핑몰창업, 패션과 창업, 창업실습, 취업창업준비 실무
3,4학년 과정	교양	창업과 경영, 취업과 창업
	전공	e-패션창업실무, e-패션창업, 패션소자본창업 I, 패션소자본창업 II, 인터넷마케팅창업실무, 어패럴쇼핑몰 창업실무, e-비즈니스창업, 패션창업기획, 패션창업실무, 패션온라인비즈니스전략, 패션IT비즈니스창업, 패션취업과 창업2, 패션디자인스튜디오창업, 창업과 취업지도, 패션창업



〈그림 12〉 학교 별 3,4학년 과정 내 창업 강좌수

목은 총 6과목이며 그 중 5과목은 교양으로 개설되었고 1과목은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1-2학기과 2-1학기는 창업관련 과목이 각각 5, 6과목 개설되어 있었고 그중 교양과목은 3과목씩 개설되어 있었다. 준학사 과정에서 가장 창업 관련 교과목이 많이 개설된 학기는 마지막 학기인 2-2학기로 11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또한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중 학사학위 혹은 전공심화 과정이 개설된 9개 학교의 경우 총 17개 창업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이 중 4개 학교는 3,4년 과정에만 창업 교과목을 개설하여 이 경우 준학사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림 11〉은 준학사 과정에 창업 교과

목이 있는 18개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과목 수를 나타내고 있다. 12학교가 2년 교육과정 중 창업 교과목을 1강좌만 개설하고 있었으며, 2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5개교, 5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1개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강좌를 개설한 학교의 경우 패션학부로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3개의 세부 전공이 있었으며 각 전공 안에 창업 교과목을 전공 특성에 따라 달리 두고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25개 전문대학교 중 준학사 교육과정에서 창업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3,4학년 과정에만 창업 교과목이 개설된 4개교를 포함하여 총 7개교로 나타났다. 〈그림12〉는 3,4학년 과정에 창업 교과목이 개설된 9개 전문대학교의 개설 강좌수를 나타내고 있다. 1강좌를 개설한 학교가 5개교로 가장 많

았으며 2강좌는 2개교, 3강좌와 4강좌는 각 1개교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전문대학교 내 창업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 본 결과 2년 과정 중 1개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 별, 학기 별로 좀 더 체계적인 창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년제 준학사 과정의 경우 4년제 학사 과정과는 달리 비교적 수업 연한이 짧아 전공 수업 이외에 많은 창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때문에 전공 교과목 뿐 아니라 교양 교과목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의 설계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아울러 정규 교과목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창업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혹은 동아리 운영, 산업체와 연계한 창업 특강 및 멘토링 등 새로운 창업교육에 대한 설계가 요구된다.

## V. 결론 및 제언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소셜미디어에서 패션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패션디자인 전공자들이 전공을 강점으로 창업교육을 배우고 졸업 후 창업 시장에 진출한다면 타전공자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 관련 전공자들의 창업과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2년제 전문대학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의 창업교과목 개설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의 재학생들에게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5.6%가 이전에 창업을 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4.4%만이 창업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창업을 해 본 유경험자의 경우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창업을 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창업 시기는 대학 입학 후 창업을 시작하였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창업 절차에 대한 지

식 부족”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업 자금 마련”, “마케팅이나 홍보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학 전 창업 교육을 받아 본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3.3%만이 대학 입학 전 창업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여 대학교 입학 이전에 창업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음으로 졸업 후 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2%가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많은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창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와 “성공에 대한 도전 의식”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창업자금 조달 계획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초기 창업 유형은 “온라인쇼핑몰”, “블로그 마켓”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00~600만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창업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창업의사가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대학 내 창업 교육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필요하다”라고 답하여 많은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이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위해 대학 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창업 전문가 멘토링”과 “정규교육과정 내 양질의 창업 교육”이 각각 41.4%, 40.9%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창업 교육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전자상거래 교육이 50.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마케팅 지식(50.3%), 사업계획서 작성(3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창업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은 과정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창업 관련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참여하고 싶은 과정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창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 창업 멘토링(34.8%), 온라인 창업 강좌 개설(19.9), 창업 동아리(1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정규교육과정 내 창업 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1-1학기에 개설된 창업 관련 교과목은 총 6과목이며, 1-2학기과 2-1학기에는 각각 5, 6과목, 마지막 학기인 2-2학기에는 11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또한 전문대학교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중 학사학위 혹은 전공심화 과정이 개설된 9개 학교의 경우 총 17개 창업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25개 전문대학 중 준학사 과정에 창업 교과목이 있는 18개 전문대학교의 경우 12개교가 2년 교육과정 중 창업 교과목을 1강좌만 개설하고 있었으며, 2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5개교, 5강좌를 개설한 학교는 1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업 연한이 짧아 많은 창업관련 교과목이 정규 수업 안에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는데 재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고취하고 도전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의 단계 별 창업 교과목 설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패션디자인 전공 재학생들의 경우 창업에 대한 요구가 많은 반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창업 교육이 대학 교육 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설문문을 통해 재학생들이 창업 교육 시 창업 역량이 풍부한 실무자들을 통한 교육을 원하고 있는 만큼 산학연계를 통한 창업 교육이 절실하다 생각된다. 아울러 대학 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든 혹은 비정규 교과 과정에서도 학기 별로 체계적인 창업 교육의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창업 교육에 대한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온라인쇼핑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중 패션 품목의 비중이 높은 만큼 공학계열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 교육을 패션디자인 전공에 맞게 특화한다면 패션디자인 전공 재학생의 또 다른 취업 출구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패션디자인과의 창업 교육 개발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권 전문대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김용웅, 차미숙. (199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창업행태 연구.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 김주미, 최진석, 신동은. (2014).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1(3), 371-379.
- 김주철. (2016).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관계부처 합동. (2013). 창조경제 실현계획: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18. 3.15). 청년창업활성화 방안.
- 고인근. (201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창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2), 1-8.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2013. 9).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
- 박준엽. (1993). 한국의 대학에서의 중소기업 창업교육 현황연구 : 강좌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15(2), 82-87.
- 박준엽. (1997). 한국과 미국의 창업지원체제의 비교 : 벤치마킹식 접근. *소기업연구*, 19(1), 251-277.
- 백형기. (1999).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력. 서울: 학문사.
- 오현정. (2018). 청년 창업가의 패션소매 창업 성공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의류 학회지*, 42(1), 133-147.
- 이보영. (2010). 청소년들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실태 및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요행. (2012).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 제도 현황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이재석, 이상명. (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을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정화연. (2018). 전문대학 패션디자인 전공자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시딩*, 52-53.
- 최진희. (2014). 패션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생활과학회 동계학술대회 프로시딩*, 11, 104.
- 한영준. (2018. 4. 6). 취업생 10명중 1명 "취업 대신 창업 준비 중. 파이낸셜 뉴스. 자료검색일 2018. 3. 10, 자료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8040608323\\_57257](http://www.fnnews.com/news//2018040608323_57257)
- Drucker, P. F., & Noel, J. L. (1986).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s and principles. *The Journal of Continuing Higher Education*, 34(1), 22-23.
- Pena, V., Transue, M., & Giggieri, A. (2011). A Surve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itiatives (IDA Document NS D-4091). Alexandria, VA: IDA(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 Schumpeter, J. (1934).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